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민규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현대인들은 산업화, 정보화와 더불어 급변하는 환경 체계의 영향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소외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물질적, 공간적 여유가 허락한다면 반려동물을 입양해 본인 또는 가족의 정신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인 양로원 노인들이나 발달 장애 아동의 경우 타인의 동물을 이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활과 회복을 제공받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동물 매개 치료(Animal Assisted

동물이 사람을 치료하는 감동의 시대

Therapy, AAT)라고 부른다.

동물 매개 치료는 사람과 동물과의 연대감을 활용해 치료 대상자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을 말한다. 최근 들어 유아나 청소년의 발달 장애 치료와 일반인들의 우울증 치료, 대인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목적으로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 능력에 대한 압박감, 학교 생활 부적응, 게임 중독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많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거노인들의 경우 우울증, 무력감, 소외감 등을 치료할 목적으로 동물 매개 치료가 적용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낯설고 초보적 단계에 있는 동물 매개 치료가 선진국에서는 심리학 및 정신 치료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양이로 인하여 사람의 말문이 열리고, 장수풍뎡이가 아이의 사고력을 발달시키며, 돌고래가 반신마비 환자의 행동 욕구를 자극하고, 승마 재활 프로그램이 재활 의학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동물 매개 치료의 효과를 입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유기견을 활용한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이러한 사례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동물 매개 치료를 도입한 것으로 치료권 전문가인 오키 도무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는 “유기견을 치료견으로 거듭나게 해 사람 이상의 따스함을 사람들에게 전파해 일본 열도가 감동의 눈물로 넘쳐났다. 한국도 유기견의 활용할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전 삼성화재에서 유기견을 활용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을 양성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 활용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치료견의 역할은 사람 별다른 게 아니다. 뇌경색 환자나 치매 환자는 지속적으로 개의 이름을 외우게 하고 개와의 끊임 없는 교감을 통해 대화가 가능하게 한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재활 기간 동안 환자와 함께 걷고 생활하며 곁을 지켜주는 게 전부일 뿐이다.

하지만 절망의 낭떠러지에 선 사람들에게 말 없는 치료견의 동행은 사람 이상의 온기를 전해준다. 치료견을 향한 애정과 유대감이 깊어질수록 살아야겠다는

의지는 강해지고 면역력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한 교육과정은 주로 동물 관련 학과에서 이뤄지고 있다. 물론 동물을 이해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동물 복지 및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동물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람의 심리 정서를 다루는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간호학과 등에서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학제간 공동 연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의 수가 1000만을 넘었지만 유기견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확대에 따른 슬픈 그늘이다. 인간에게 버림받았지만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 다시 돌아올 견공들을 위해 우리는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칼럼



장형규
원불교 사무국장

세월의 속도는 나이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시간은 올 한 해도 유수와 같이 흘러 지나 바야흐로, 2017년이라는 나무도 사울이라는 잎사귀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유독 2017년에는 최초, 혹은 사상 최대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된 해가 된 듯합니다.

‘피정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건국 이래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집행되었고, 연이은 북한 핵미사일 실험속에서 강행된 성주 사드가 배치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5·18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함께 일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해 목포 신항에서 그 마지막 추모식까지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살충제 계란, 총기

2018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사고, 경주와 포항 지진, 어금니 아빠, 북한 병사 귀순, 제천 화재 사고 등 그동안 겪지 않았던 재해 재난 역시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꿈과 희망을 다시 쟁기며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밝은 햇빛과 기쁨 수 있는 어께만 있다면 그럭저럭 살아갈 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꿈과 희망은 누군가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꿈은 내가 꾸는 것이고, 내 희망은 내가 설계할 때 부풀어지고 실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무거웠던 시름은 벗어놓고 이제는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는 희망의 2018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희망의 날이 되기 위해서 나는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한해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지만 가장 그 근본이 되는 사랑은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배려와 감사를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신을 방치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아끼고 돌보아주며 어찌보다 나은 오늘이 될 수 있

도록 나를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습관을 점점 고쳐 나가고,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습관을 점점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삶에서 생기는 많은 일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해결책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 게으름, 욕심의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참되고 진실 되며,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 유가 있듯이, 내가 존재하며 살아가는 이 유는 나를 성장시키고 자아를 실현시키며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변에 감사하는 한 해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혹자는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숨을 30초만 멈춰보세요. 아마 공기가 숨을 호흡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

할을 해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큰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역할이 서로서로 돕니 바뀌어 되어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역할 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장애인이 수년째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진전이 없자, 참다못한 광주 지역 뇌병변 장애인 5명이 어제 시외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공식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 차별이나 간접 차별을 못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은 대부분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돼 있고, 시외버스인 고속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소송에 참가한 한 장애인은 죽기 전

社說

5·18 행불자 찾기 ‘희망의 끈’ 놓지 말아야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가족들에게 각별한 한 해였다. 어느새 37년이 지났지만 잃어버린 가족의 유해나마 찾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다시 지필 수 있었기 때문이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이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에 암매장 추정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에 나선 것이 그 계기다.

그저께는 광주시 서구 차평동 옛 상무대 인근 광주천변 자전거점에서 굴착 작업이 진행됐다. 5·18 당시 전남북 계엄본소가 있었던 전투병과사령부 주둔 지역이다. 재단은 이날 오전부터 7시간 동안 굴착기를 이용해 2개 구간에서 발굴 조사를 벌였지만 유해는 찾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달 6일부터 기록과 제보를 바탕으로 옛 광주교도소와 너릿재 터널 등에서 50여 일간 진행됐던 발굴 조사는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조사가 답보 상태인 이유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꼽힌다.

계엄군에 의한 암매장 흔적 훼손이나 위치 선정의 오류이다.

계엄군은 희생자 암매장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사후 증거 인멸까지 조직적으로 행했을 공산이 크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핵심 증언이 나와야 한다. 양심 선언을 끌어내려야만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고, 목격자는 포상하는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암매장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일보와 인터넷서 증언한 3공수여단 소속 신순용 전 소령을 비롯해 김모 하사, 유모 병장 등이 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5·18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개부터 발굴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37년이 넘도록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정치권은 조사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5·18 특별법을 조기 통과시켜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시외 이동 위한 저상버스 필요하다

전동 휠체어를 타는 전국의 장애인들은 명절만 되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버스타기 시위(?)를 벌인다. 시내 저상버스와 마찬가지로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게 고속·시의 저상버스를 도입해달라는 퍼포먼스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장애인이 수년째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진전이 없자, 참다못한 광주 지역 뇌병변 장애인 5명이 어제 시외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공식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 차별이나 간접 차별을 못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은 대부분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돼 있고, 시외버스인 고속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소송에 참가한 한 장애인은 죽기 전

에 경기도 남곡당에 모신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찾아가는 것이 소원이라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다만 몇 대라도 저상버스를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른 장애인은 “장애인도 같은 국민인데 시외를 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조그만 배려만 해주면 되는데...”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일반인보다 불편한 장애인들이 최소한 흉내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복지 사회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운행중인 고속버스나 저상형은 우등버스보다 좌석 공간이 넓고 뒤로 완전히 젖힐 수 있는 형태로 승객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다고 한다. 판결 이전에 고속버스 회사들이 일반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만큼은 아니라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면 어떨까? 주요 노선에 일부라도 저상버스를 도입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줄기 기대한다.

기고

세계환단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마치고



정병섭 변호사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환단학회(회장 홍윤기)가 주최하고 세계환단학회 호남지회(회장 조재욱)가 주관한 추계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세계환단학회는 독립운동가 윤초 계연수 선생이 1911년 출판한 ‘환단고기’(檀檀古記)가 말하는 환단 역사 철학을 인문 사회 과학과 자연 과학의 융합적 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해 지난 2014년 6월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전국 300명 대학 교수의 참여로 설립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17대 인종 23년(1145년)에 사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

사기’가 가장 오래된 역사책으로 공인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역사의 시초를 신라·고구려·백제 삼국에 그친 연한이 있다. 고려 25대 충렬왕 9년(1283년)에 스님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는 ‘고기(古記) 이르기’를 시작해 환웅과 단군의 편린을 보여주기는 하였으며, 역사가 못되고 단군 신화(神話)에 머물게 해 통한 수 놓았다.

환단고기는 신라 진평왕 때 스님 안함로(579~640)의 ‘삼성기’(三聖記) 상, 고려말 원동종(元童仲)의 ‘삼성기’(三聖記) 하, 고려 충렬왕 때 이암(1297~1364)의 ‘단군세기’(檀君世紀), 고려말 법종의 ‘북부여기’(北扶餘記), 조선 중종 때 이맥(1455~1528)의 ‘태백일사’(太伯逸史) 8책 도합 5권, 12책으로 구성된 것을 윤초 계연수(1864~1920)선생이 합편하여 ‘환단고기’라고 이름 지은 책이다.

환단고기에 의하면 소위 단군 신화는 거짓이다. 실제 조선의 단군은 한 명이 아니고 47명으로 47세 2096년간 이어졌고(단군은 왕의 칭호였음), 조선 이전의 나라 배

달국의 통치자인 환웅은 18명으로 18세 1565년을 다스렸다. 또한 인류 최초의 나라 한국의 최고 지도자인 환인은 7세 동안 내려오며 3301년을 다스렸다. 그러므로 한민족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반만년 역사가 아니라 9천여 년(BC 7197년)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전 기조 강연 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원 수놓은 연구자, 한국신학대 김상일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이어 우크라이나 연구자인 올렉산더 이시츠크(Olexander Ishchuk)씨의 강연을 들었다.

오후에는 학술 발표 및 종합 토론으로 명지대 허철부 명예교수, 대전대 윤창열 교수, 상생문화연구원 원정근의 발표와 조원홍(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김춘섭(전남대 명예교수), 유철(상생 문화연구소)의 반론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환단고기’를 완역한 안경전 역주자의 ‘환단고기의 사서 가치와 역사문화 정신’에 관한 초청 특강도 있었다.

열강이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더 진행되어 500여 명의 청중이 끝까지 집중해

서 경청했다. 강연 후 청중 200여명이 다시 만찬장으로 옮겨 여운을 즐기며 밤늦게 학술대회의 모든 행사를 마쳤다.

성황리에 학술대회를 마치게 된 것은 그동안 환단학회의 러시아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등 국내외 학술대회 활동과 식민사관, 사대사상, 중화사상 등에 속아 오도된 상고사를 바른 지식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전국 지식인들의 각성에 힘입은 바 크다.

이번 대회를 후원해준 이 지역 주요 경제인들(C회장, K회장을 비롯한 여러 회장님들)에게 재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행사기간 중 사업차 외국에 나가 있어서 미안했다며 행사후 에 협조해 준 P회장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후원자가 있어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 우리 학회의 역사 광복운동이 중국의 동북공정 등을 압도하고 광우항 일학생운동, 4·19, 5·18 등과 같이 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호남정신, 광주정신에 힘입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될 것을 확신한다.

無等鼓

더비 매치는 연고지가 같은 팀끼리 펼치는 라이벌전을 말한다. 영국에서 맨유와 맨시티의 맨체스터 더비, 이탈리아에서는 AC 밀란과 인터 밀란의 밀라노 더비가 치열하다. 연고지 외에 전통의 라이벌끼리의 경기도 외에 칭호를 붙여준다. 특히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이하 바르사)와 레알 마드리드(이하 레알)의 오랜 대결은 클래식 더비라는 고유명사가 됐다. 그들의 말로 하면 ‘엘 클라시코 데비르’.

전쟁을 치르고 있다.

‘클럽, 그 이상이 되자’, 축구를 넘어 정치와 문화에까지도

목소리를 낸다. 홈구장인 캄프누는 오프라인 분노를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탈출구이자 배방구다. 그들은 이곳에서 울분과 분노를 그들의 언어로 마음껏 발산한다. 바르사도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있다. 마치 전두환 정권의 암울했던 시절 해태 타이거즈가 눈부신 성적으로 호남인들의 고통과 절망을 어루만져 주었던 것처럼.

반면에 레알은 ‘꿈을 주는 클럽’을 지향한다.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지급해 소위 갈락티코(스타 플레이어)들을

영입해 최강의 팀을 만든다. 창단할 때 이름은 FC 마드리드였지만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레알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영어로는 로열, 왕가의 축구클럽이라는 의미다.

지상 최대의 축구 대결 엘 클라시코, 바르사와 레알은 친선전을 제외한 공식 경기에서 236번 싸워 레알이 95번, 바르사가 92번 승리했다. 승패를 가리지 못한 경기는 49번. 이들은 지금도 전 세계 4억~5억 명의 시청자와 함께 또 다른

최근 스페인의 라리가 한구 팬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

메시와 호날두 두 축구스타의 대결 엘 클라시코를 시청하기 가장 좋은 토요일 오후 9시에 편성하고 홍보대사를 파견해 콘텐츠 ‘유료화’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23일 이를 생중계하는 국내 방송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방송사 서버가 과부하로 다운되고 생중계가 지연되기도 했다. 유료와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경기 관람 자체가 불편하다면 문제가 있다. 중계 방송의 수준이 그 나라의 스포츠 문화의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유재만 편집부 부국장 jkyou@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